월간 〈통도〉 500호 발간…잡지 포교 선도

중봉 성파 대종사 휘호 '이법위사(以法爲師)' 장식

1920년 발간한 〈축산보림〉 계승
500호에 발간호 당시 표지 재현
〈등불〉 〈보궁〉 〈통도〉 명칭변경
진우 스님 "포교 중흥기 이끌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불교 최초 사찰 홍보지 〈축산보림(鷲山寶林)〉의 전통을 이어온 통도사 월간 사보 〈통도〉가 발간 500회를 맞았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7월 월간 〈통도〉를 통해 500호 발간을 기념하고, 창간호부터 이어온 역사를 고찰해 창간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을 알렸다.

500회를 기념하며 발간한 〈통도〉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휘호 '이법위사(以法爲師, 진리로써 스승을 삼아라)' 가 첫 장을 장식해 독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등불〉은 통도사의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한 불교기록유산"이라며 "이에 앞서 1920년대 이미 발간한 〈축산보림〉, 〈조음〉을 통해 통도사는 선진화된 사찰 잡지의 효시를 선보였다. 불교 잡지는 시대를 앞서가며 민족계몽과 민중교화에 앞장서 왔으며 포교 중흥기를 이끌어 전법사의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전했다.

월간 〈통도〉는 1981년 10월 15일 〈등불〉로 창간되었고 이후 〈보궁〉과 〈통도〉 등 명칭을 바꾸며 역사를 이어왔다. 창간호의 발간사에 따르면 〈통도〉는 대중 포교를 위한 불법의 전령사 역할을 담당할 의지를 담고 있다.

발간사에는 "1500여 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그 진수를 담은 문헌과 자료는 다분히 많으나, 인연이 없는 중생들은 그를 대할 기회가 없고, 설사 대한다 해도 지극히 난해한 한자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심오한 철학적 논리는 대중으로 하여금 거리감만 조성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조그마한 원고가 인연이 되어 불법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입문의 계기가 되고 귀의한 분들께 신심을 돈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없는 보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2호부터는 동화를 연재했고 오랫동안 대표 코너로 삼았다. 특징은 오직 한글로만 구성해 어린이들이 편히 읽고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대해 〈통도〉 편집위원회는 특집호를 구성하며 "현존하는 사찰 소식지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사보의 효시이자 동시에 한국의 근현대사를 함께 호흡한 민족 기록물"이라며 "창간호 발기문은 불법 홍포지로 나아가야할 〈등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월간 〈통도〉는 1920년 1월 15일 통도사에서 발간한 최초의 불교종합잡지 〈축산보림〉이 효시다. 〈축산보림〉의 축산(鷲山)은 통도사를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이며 보림(寶林)은 보배의 숲을 의미한다. 〈통도〉 500호를 맞아 발간한 특집호 표지는 〈축산보림〉의 창간호 표지로 날아오른 독수리와 영축산이 배경으로 담겼다.



통도사가 월간 〈통도〉 500호 발간을 기념하며 특집호를 발간했다. 사진은 불교계 최초 불교종합잡지 〈축산보림〉 창간호 표지를 그대로 담아 500호를 기념한 〈통도〉 표지.

〈축산보림〉은 구하 스님이 대표로 발간한 불교종합잡지로 1919년 3·1운동 이후 이듬해 발간해 역사 속에서 민족계몽운동의 선구자로 앞장섰다. 〈축산보림〉은 특히 불교 잡지로 통도사 소식을 전했을 뿐 아니라 한국문화를 담는 문화잡지 역할을 담당했다. 〈축산보림〉에는 〈조선문학사〉와 한국 최초 추리소설 〈혈가사〉 등을 담아 민족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려 노력한 흔적이 있다.

〈통도〉 편집위는 "불교를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려 했던 오롯한 정신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월간 〈통도〉에 유효하게 전승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령 500호를 넘어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기록물을 함께 쓰고 있다. 이 기록 속에 많은 이들이 찾고자 하는 바가 있었고, 그 많은 인연들은 물음에 답하고자 부단히 원력을 쏟았으며 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 전했다.

적운 스님, 유럽서 '선무도' 지도

프랑스 툴루즈서 세미나 개최



세계선무도총연맹 종재 적운 스님이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유럽을 순회하고 선무도 수련을 통한 포교의 장을 마련했다.〈사진〉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주지인 스님은 매년 유럽을 탐방하며 해외에서 선무도를 수련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법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선무도 유럽세미나는 프랑스 툴루즈에서 진행됐으며 적운 스님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에서 활동 중인 선무도 사범과 수련생 300여 명이 동참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렸으며, 선무도 승단 심사와 불교 강의, 선요가, 선명상 등 선무도 수련이 진행됐다. 적운 스님은 천태소지관과 선무도 수행을 주제로 법문했다. 마지막으로 수계식을 봉행해 외국인 수련생 110명이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 세미나 이후 적운 스님은 유럽전통태권도연합회(TTU)가 주최한 태권도 썸머페스티벌에 그랜드 마스터(Grand Mster, 태권도9단) 자격으로 참가해 불교와 선무도 철학에 대해 강의했으며 선무도, 선요가, 참선 등을 지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포교사단, 범어사 대중공양 올려

법화경 독송 수행 회향 일환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이 7월 14일 범어사 경내에서 '2023년 하안거 법화경 독송 수행 대중공양' 을 진행했다.〈사진〉 부산 포교사단은 매년 동안거와 하안거를 지내며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행기간 동안 모은 보시금을 대중공양 하고 있다. 포교사단은 하안거를 맞아 80일 동안 〈법화경〉 독송을 이어왔으며, 부산 포교사단 35개팀 전원이 참여해 〈법화경〉 전권을 릴레이 독송했다.

대중공양에는 송재린 단장을 비롯해 정분남 자문위원 등 임원단 10여 명이 동참했으며, 공양은 여름을 맞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메밀국수와 꼬마김밥, 유부초밥, 수박 등 다채로운 메뉴로 100인분을 마련했다.

송재린 단장은 "하안거 기간 연이은 장마로 모두가 지치고 힘겨운 시간이었다"며 "수행하는 승가에 공양을 올리고 마음과 함께 몸이 건강한 시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수행 공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부산 포교사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봉 대선사 인재양성 유지 계승"

경봉 스님 41주기 추모다례
경봉장학회, 장학금 지원도


7월 14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봉행된 경봉 대선사 열반 제41주기 추모다례재.

한국불교 선지식을 대표하는 경봉 대선사의 열반을 기념하는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더불어 경봉 대선사의 불교인재 양성 염원을 잇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경봉문도회(문장 원산)는 7월 14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당 정석 대선사 열반 제41주기 추모다례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을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문도대표 원명 대종사, 경봉문도회장 원산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등 문도스님들이 동참했으며, 영축총림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다례재는 조계종 어장 원명 스님의 집전으로 △개식 △대중삼배 △추모입정 △종사영반 △헌다 및 헌향 △경봉스님 육성법문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인사말 △폐식 순으로 이어졌다.

경봉장학회는 이날 2023년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통도사 재적스님 가운데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과정 도운 스님, 선주 스님, 남수 스님을 비롯해 석사과정 7명, 학사과정 5명 등 총 15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 8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후원했으며, 통도사 보광선원, 극락암 호국선원, 서운암 무위선원 수행지원금과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연구비 800만원 등도 전달했다.

경봉문도회장 원산 스님은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올린다. 은사이신 경봉 대선사의 유지를 잇고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화합과 큰스님의 뜻을 이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봉 정석(鏡峰 靖錫, 1892~1982) 스님은 근현대의 고승으로 속명은 용국(鏞國), 호는 경봉(鏡峰), 시호는 원광(圓光)이다. 15세 되던 해 모친상을 겪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16세 때 양산 통도사의 성해(聖海) 선사를 찾아가 출가했다. 1927년에 통도사 화엄산림법회에서 법주 겸 설주를 맡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하던 중, 4일 만에 천지간에 오롯한 일원상(一圓相)이 나타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물(一物)에 얽힌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화두를 들어 정진하다가 1927년 11월 20일 새벽에 방안의 촛불이 출렁이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1935년 통도사 주지, 1941년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지금의 선학원) 이사장을 거쳐 1949년 4월에 다시 통도사 주지에 재임됐다. 1953년 극락호국선원 조실에 추대돼 설법과 선문답으로 법을 구하러 찾아오는 불자들을 지도했다. 1982년 7월 17일 법랍 75년, 세수 91세로 열반에 들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용호복지관,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독거어르신 등 소외이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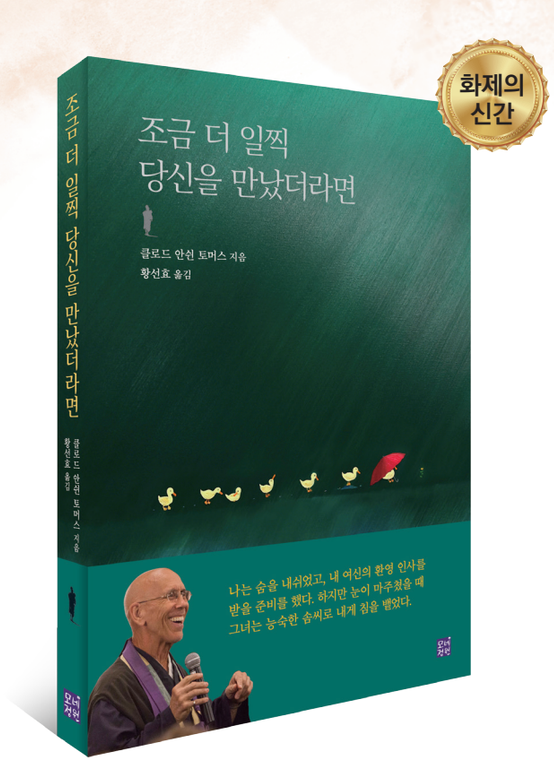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7월 15일 복지관 관내 일원에서 '효도삼계탕 DAY' 행사를 진행했다. 나눔에는 주식회사 한탑이 775만원 상당을 후원했으며,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했다.〈사진〉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이번 행사에도 어김없이 도움을 주신 류원기 한탑 회장님과 하상경 대표이사 그리고 임직원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상경 한탑 대표이사는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게 기력 보충하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한탑이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은해 용호종합복지관장은 "한탑의 후원과 더불어 여러 봉사자,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며 "모두 이번 여름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